

#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최영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1. 교수학습 방법의 필요성

교사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의 목표가 다양하고, 학생이 다양하며, 상황이나 맥락 역시 다양한데 특정 교수·학습 모형만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실 수업의 다양성을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만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교사 양성에도 적합하지 못하다. 교사들은 교수·학습 모형이 모든 수업 목표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모형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이나 학습 조건에 따라 교수·학습 모형을 변형하거나 수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교수·학습 모형의 원형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형의 내적 구조를 밝히고, 교사로 하여금 필요한 요소를 선택하여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교수·학습 모형의 활용 방식

국어과 수업에서 교수·학습 모형을 도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단일 교수·학습 모형
- ② 교수·학습 모형의 연쇄와 통합

교수·학습 모형의 연쇄와 통합에서는 모형을 각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고, 연쇄나 통합을 위한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원리에 따르면 교실 수업에서 교사는 하나의 교수학습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 목표에 따라 일부 모형을 선택할 수 있고, 교육의 일반 원리에 맞는 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집단을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형도 선택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교수·학습 모형을 살펴볼 때 통합의 원리 이외에 구체적인 통합의 지침이 필요하다. 교사가 수업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교수·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선별하여 통합하는 형식이 된다.

- ③ 교수·학습 (모형) 요소의 통합

교수·학습(모형) 요소의 통합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모형의 창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①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교수·학습 모형의 연쇄와 통합이라는 ②의 단계, 더 나아가 수업 목표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전개할 수 있는 요소의 통합이라는 ③의 단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3. 교수·학습(모형) 요소의 분석

수업이 중심이 되는 교수·학습 요소의 분석은 수업의 절차를 따라가면서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이는 교사가 수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통합한다는 원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 가. 단원의 목표 특성

최영환(2002)에서는 국어과 목표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지식 목표: 지식 학습형, 원리 이해형, 전략 개발형

기능 목표: 기능 연습형, 원리 적용형

#### 나. 목표 도달 방식

단원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유형과 유사하다. 교육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교사가 기본 원리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과 학습자가 스스로 자료를 탐구하여 무엇인가를 찾아 내게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 연역적 접근

㉡ 귀납적 접근

#### 다. 교수·학습 참여자의 관계

교수·학습의 참여자는 크게 교사와 학습자로 나눈다. 교사와 학습자 주도 형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넷으로 나눌 수 있다.

㉢ 교사 일방형

㉣ 교사 주도형

- ㉔ 교사-학습자 대등형
- ㉕ 교사 지원형

일방형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능동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반해 배우는 사람은 매우 수동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이다. 교사의 강의만으로 진행되는 수업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교수·학습 주도형은 가르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다른 한쪽이 그에 따르는 형태이다. 대개의 수업이 이런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대등형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지원형은 학습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라. 구성원의 과제 분담 방식

소집단 학습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모둠 학습, 협력 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나 협동 학습(cooperative learning) 모두 이러한 소집단 학습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집단 내에서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역할 분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㉖ 개별형
- ㉗ 공통형
- ㉘ 분담형

개별형은 소집단을 이루어 교수·학습을 진행하되, 각가의 도달 목표가 다른 것을 말한다. 소집단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지만, 개인이 가진 목표는 다른 사람과 무관하며, 학습의 결과 역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다.

공통형은 소집단을 이루어 학습을 하되 구성원 전체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 함께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식이나 기능은 다른 구성원과 같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수학습의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과정을 함께 한다.

분담형은 소집단 안의 구성원들이 소집단의 목표를 하위 목표로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다. 각 구성원의 지식이나 기능은 전체 구성원의 일부가 되어, 이의 총합이 집단의 지식이나 기능이 된다. 분담형은 출발점에서는 구성원이 목표를 나누어 맡게 되지만, 종착점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형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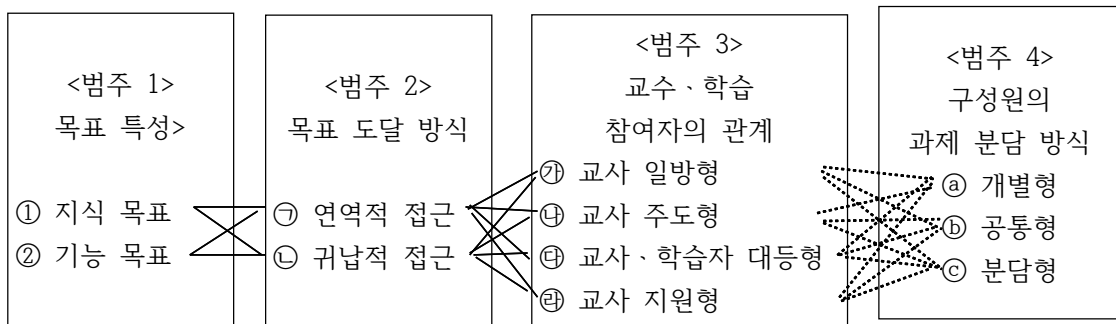
교수·학습 요소는 크게 네 가지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수·학습 요소의 분석 기준

요소	단원의 목표 특성	목표 도달 방식	교수·학습 참여자의 관계	구성원의 과제 부담 방식
하위 항목	지식 목표 기능 목표	연역적 접근 귀납적 접근	교사 일방형 교사 주도형 교사·학생 대등형 교사 지원형	개별형 공통형 분담형

#### 4. 교수·학습 설계 방법

교수·학습 모형을 범주별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범주와 조합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교수·학습 요소의 조합

이러한 범주 및 조합의 가능성은 국어과 교육에서 수업을 설계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첫째,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직접교수법은 <범주 1>에서 ① 기능 목표, <범주 2>에서 ㉠ 연역적 접근, <범주 3>에서 ㉣ 교사 주도형의 교수·학습 모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한편 전문가 협력 학습은 <범주 1>과 <범주 2>에서 아무런 항목을 선택할 수 없고, <범주 3>에서 ㉬ 교사 지원형, <범주 4>에서 ㉨ 과제 부담형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 교수·학습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을 분석하여 체계를 얻게 된다면 기존의 모형을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제 수업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얻게 된다.

둘째, 교수·학습 모형의 연쇄와 통합에 유용하다. 교수·학습<그림 1>과 같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범주별 교수·학습 모형이 제시되면 하나의 교수·학습이 두 개 이상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교실 수업을 전개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수업의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교수·학습 모형의 연쇄와 통합에서는 <그림 1>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는 연쇄에서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의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탐구학습법이 <범주 1>에서 ① 지식 목표, <범주 2>에서 ㉠ 귀납적 접근, <범주 3>에서 ㉡ 교사 지원형의 특성을 갖는데, 이 모형에서 <범주 1>에서 목표를 ② 기능 목표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범주 3>에서 ㉢ 교사 주도형이나 ㉣ 교사·학습자 대등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교사 주도형이나 교사·학습자 대등형에 속하는 다른 모형을 선택하여 조합할 수 있게 된다.

교수·학습 모형의 통합은 두 개 이상의 모형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형의 장점을 잘 알고, 모형이 중점을 두는 것도 알아야 하며,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모형이 하나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되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직접교수법은 <범주 1>, <범주 2>, <범주 3>에서 각각 하나씩의 특성을 갖게 되지만 <범주 4>에서는 아무런 특성이 없다. 여기에 <범주 4>의 특성을 갖는 전문가 협력 학습을 통합하게 되면 ② 기능 목표-㉦연역적 접근-㉣ 교사 주도형에 ㉢ 과제 부담형을 취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직접교수법으로 하면, 전문가 협력 학습은 집단의 조직 방식을 제공하는 선에서 그 역할을 제한하기 때문에 직접교수법의 기본 구성 요소를 변형시키지 않고도 통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여 탐구학습법을 직접 교수법의 앞에 넣을 수도 있고, 직접교수법과 역할 놀이 및 전문가 협력 학습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다.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과거에는 교수·학습 모형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모형보다는 수업 목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모형은 어차피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이다. 여기에서 ‘어떻게’는 ‘무엇을’에 선행할 수 없다. 즉 수업을 설계하려면 우선 <범주 1>에서 목표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즉 단원이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범주 1>의 목표 유형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중 먼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범주 2>에서 결정하고, 이어서 <범주 3>에서 교수·학습 참여자의 관계를 결정하면 된다. 여기까지 결정하면 일단 교수·학습의 기본형태를 갖추게 된다. 교실 수업에서 <범주 1>에서 <범주 3>까지의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주 4>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수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차례를 따라 ‘지식 목표를 연역적으로 접근하는데 교사 주도형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집단을 조직하여 부담형으로 할 수도 있다. 즉 지식과 기능 목표를 모두 고려하면 국어과에서는 기본 교수·학습 형태가 16개가 되며, 집단의 조직 방법에 따라 48개의 교수·학습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수업에 두 개 이상의 하위 목표가 있을 경우 각 하위 목표별로 별도의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교수·학습의 형태는 무수히 많아지게 된다.